사 설

직지사의 수행환경

전통사찰은 그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찰 주변의 자연림을 보호해 온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민족의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문화의 보고이다.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지니고 있는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이 파괴되면 결국 많은 국민의 신앙 생활이 침해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국가적인 큰 손실이며,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찰 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의 보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법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건축법의 개정이 사찰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의 파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불교계와 국민들의 우려는 바로 정부가 이러한 큰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진 직지사 수행환경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사찰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아울러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찰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단순히 특정 종교의 행위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 것은 그간의 무수한 사찰환경 관계의 재판에서 볼 수 없었던 진일보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에도 이미 10여건의 사찰환경과 관계된 분쟁에 대하여 사찰환경의 보호라는 쪽으로 흐름을 트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중한 판례이다.

이러한 판결은 사찰 자연환경 보호를 법적인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며, 또한 불교의 종교적 행위를 국가의 이익과 연결시켜 이해한 것이기에 불교계로서는 큰 원군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받은 일이기에 불교계가 더욱 더 큰 각성으로 이러한 일들을 공적인 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내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찰주변의 자연보호를 범국민적 환경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 나감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모든 국민이 나서도록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남의 사유재산권까지 제한하면서 얻어진 수행의 권리가 모든 불자들과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 자양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교단의 수행 풍토를 진작시켜야 한다. 이번의 판례의 정당성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갈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하는 일이 불교계가 떠안은 영광스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의 과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이 4월2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유기체나 자아가 갈등상황에서 적응이 잘 안되어 증상화된 내용을 상담자와 더불어 원래의 안정상태로 풀어가는 것이다. 인간사 모두가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지혜롭게 풀릴 수도 아니면 파괴적으로 이어져 갈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상담이란 단어는 대중적으로 이해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갈등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 많다는 뜻도 된다. 건강하다는 상태는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정신의 안녕은 바로 종교적인 마음이며, 이는 불심과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상담이란 기법이 서양문화에서 생긴 틀이긴 하지만 그 근본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진여의 깨달음과 같을진대 불교 그 자체가 큰 테두리의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전화상담을 통해 불자들의 갈등을 풀어주던 자비의 전화와 사찰의 상담실 그리고 산발적인 상담교육 등이 새로운 모습으로 결집되어 불교상담개발원이 탄생한 것으로 안다. 축하에 겸하여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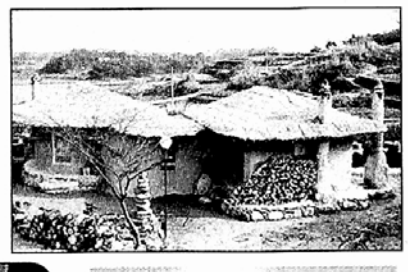
첫째, 너무 좁은 테두리에서의 상담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넓게 이어져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지름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두번째로는, 체계화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불교 자체가 깨달음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면서 체계화에 소홀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흐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이나 가족에게는 고를 극복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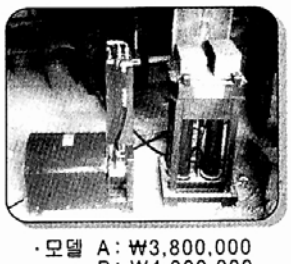
이렇게 하자면 불교적인 상담이 어떤 틀 속에서 정리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화두, 깨닫기 대상이며 수단

'변상섭씨의 화두란 무엇인가'를 읽고

황 경 환
한국불교연구원 연구위원

현대불교신문에 '선과 21세기'란 제목으로 연재되고 있는 최근의 내용중에서 (2000년 4월5일) 변상섭 위원이 쓰신 '화두에 대하여 화두는 해설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읽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정작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한다는 그 사람도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분은 화두에 대해 이것은 이런 의미이고, 저것은 저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분은 화두에 대한 해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치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에 관해 오랫동안 서로 자기네들의 주장이 옳다고 논쟁하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중국풍의 불교에 지나치게 의식화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의 해묵은 논쟁 거리였으니 화두 논쟁이 어찌 두 분만의 논쟁거리이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 화두에 대한 진실한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위대한 스승 고오타마 싯달타 그가 생노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깨어날 수 있는) 길을 알아내고 오직 이 길을 걷는 것만이 깨어남에 있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신 고귀한 8겹의 길. 여기에 대하여 우선 자세히 살펴본 후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야 이해가 쉽겠다고 생각합니다.

화두 해석 놓고 논쟁 화두 의미와 무관

만약 어떤 사람들이든 고오타마 가르침의 핵심인 고귀한 8겹의 길(8정도)인 '아리야 아탄 기이까 막까'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화두에 대한 조사님들의 근본 뜻도, 돈오와 점수에 대한 이해도 모두 풀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고귀한 8겹의 길 가운데 첫번째가 '바르게 본다'인데(正見) 바르게 본다는 것은, 바르게 안다는 것과 동의어로써 무엇을 바르게 아는가하면 그것은 깨어나는데 필요한 고오타마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나무를 설명할 때 나무라는 이 한 토막의 소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라는 이 낱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 그루의 나무는 뿌리가 나무다, 가지가 나무다, 잎이 나무다라는 시비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바르게 이해한다면 무엇이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선종 5가의 하나인 임제 종파가 만들어낸 이 화두 참구법은 깨달음에 이르려는 방편이며 관문으로써 여기에는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들이 있는데(△정확한 이론과 익혀야 할 몸가짐에 대한 정비 △개발해야 하는 5가지의 기능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일)이러한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름길로 바로 나아가려는 획기적인 선수행(명상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 길이 지름길로 가는 획기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지름길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도 선지식의 지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있는 선지식의 지도 없이 나아가다가는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거나 또는 몇 발자국 나아가다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으로 일평생을 아니 수없는 생을 거듭하여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선지식들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행은 병을 다스리려고 약을 쓰다 그 약으로 인해 더 심각한 병을 얻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화두란 사티(깨닫기·삼마사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래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마나'가 감각하는(뇌감각 기관) 여러 대상들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우선 정지시키는 하나의 특별한 방법으로써 사티의 대상 하나만을 설정해 놓고 (화두가 여기에 해당됨) 거기에서 잘 개발된 삼마사티(바르게 깨닫기, 正念. 단 여기에서 삼마 즉 바르게라는 것은 사티의 대상이 아닌 것을 사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됨)와 삼마사마디(바르게 집중:正定)그리고 만약 사티가 꺼지면 다시 일으키는 노력의 삼마바야마(바르게 노력한다:正精進)라는 3박자의 조화를 합쳐 사마디(禪定三昧)라고 합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꺼지지 않는 깨닫기를 통해 극적으로는 언어 활동(문의하고 사유하는 생각:口業)과 신체 활동(들숨날숨을 포함한 신체활동:身業)이 중지된, 즉 지각되지 않는 '제 4쟈나'에서 나의 몸의 기능은 정신활동만 남아있는 (마나의 정신활동:意業)상태에서 깨어남의 길로 나아갈 고단계(아눗다라 샴먁삼보디, · 구경열반)와 무색계로 들어가는 하단계(무색계의 5.6.7.8단계의 경지가 있는데 즉, 무한공간, 무한의식, 아무것도 없음, 비상비비상처)가 있는데 고오타마는 삼계와 (欲界, 色界, 無色界)삼계를 넘어 정신활동마저 꺼져버린 9단계 세계까지 체험하고 다시 제4쟈나로 돌아와 여기에서 고단계로 나아가(비시공간의 세계:구다가 니가야 중 우다나 참고) 자기의 수없는 전생과 생사를 거듭하는 원인인 카르마의 법칙과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오타마가 시비공간의 세계에서 알아낸 3가지 깨달음의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두란 마나 감각기관의 감각하는 작동을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화두라는 한곳에 집중시켜 놓은 사티의 대상이며 깨닫기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화두에 의미를 이러니 저러니 해석을 하고, 또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이론을 잡다하게 설명하는 양단의 논쟁은 화두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또 임제 종파에 대한 그리고 조사선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옛 선사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귀한 8겹의 길을 우선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고귀한 8겹의 길 가운데 맨 끝부분의 3개 즉 삼마바야마(正精進) 삼마사티(正念) 삼마사마디(正定)를 묶어서 그냥 사마디(戒, 定, 慧 삼학의 正에 해당)라고 하는데 삼마사티는 고오타마 명상의 요체이고, 삼마사마디는 그 형태이고, 삼마바야마는 그것의 지탱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3가지 전체를 고오타마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간화선을 하는 수행자는 수행에 앞서 고오타마의 고귀한 8겹의 길을 정확하고 바르게 안 후 돌아서 가든지 지름길로 가든지 결정한다면 허물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자는 고오타마의 법 실천자 미혹세계 벗어나는길 찾아야"

오히려 빨리 가려고 알지도 못하는 지름길을 가다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 그리고 깨어남에 있어 인류 최고의 권위자 고오타마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고오타마 말씀과 가르침이 아닌 것을 고오타마의 말씀인냥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밤 마아야 슈루탐'하면 모두가 고오타마의 말씀인냥 검증없이 그냥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오타마는 누누히 당부하셨습니다.

'수타마야, 치타마야, 바바나마야', 내 말을 우선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을 믿지 말고 동의하지도 말라. 그리고 내 말이 사실인지 실험하고 그것이 증명되면 그것만 확신하라고 말입니다.

고오타마 그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귀한 8겹의 길, 즉 아리야 아탄 기이까 막까(중국어 번역:8정도. 여기에서 중국어 번역이라고 계속 괄호를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와는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릇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경전에 익숙해진 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다)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분이 깨어난 이후 남기신 평생 동안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며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의 사전을 펼쳐보면 고귀한 8겹의 길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그 사전적 의미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복잡합니다.

설명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결국 잘 모른다는 말이며 그것의 증거입니다.

설명은 설명 대상보다 쉬워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더 어려우면 설명을 위한 설명이 겹겹이 쌓여 본래 의미는 다른 곳에 있고 설명만이 남아 있게 됩니다. 고귀한 8겹의 길 중 첫번째 등장하는 바르게, 즉 삼마라는 초월언어가 내포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위대한 스승 고오타마 가르침의 핵심인 고귀한 8겹의 길을 그릇되게 알고도 내가 깨어날수 있을까. 물론 고오타마도 혼자 깨어나신 분이고 다른 분들도 혼자 깨어나신 분이 있으니 우리도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오타마께서도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빨리 경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고오타마의 8겹의 길은 다시 3개로 묶어서 판냐, 실라, 사마디 (중국어 번역:계, 혜, 정:삼학)라고 했는데 이 8겹의 길을 실천하기 위해 고오타마는 5가지의 기능을 개발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섯가지 기능이란 아시다시피 1.판냐(정확한 이론) 2.실라(정확한 이론에 대한 확신) 3.사마디(집중력) 4.비리야(활력) 그리고 이 4가지의 중심이 되는 5.사티(깨닫기)입니다.

고오타마의 가르침 '8겹의 길' 바로 이해

단, 여기서 사티는 내 몸의 기능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아닌 즉, 시공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시공간의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시공간의 사티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법실상을 통찰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법실상이란 내 의식속에 의식된 세계를 말하고 있으니(세계는 내 의식안에 있다) 즉 내 의식속에 비쳐진 감각된 것을 말하고 있음입니다.

이때 우선 사티의 대상은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 날숨 깨닫기부터 집중해 나가는 단계, 이것은 루빠 사티라 하여 신체감각에 대한 깨닫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나파나사티 숫다 빨리 경전 해설서 및 한국불교연구원 발간, 반야심경 해설서, 어떻게 하면 깨어날 것인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오타마 명상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비빠사나 명상이 마치 고오타마 명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고오타마 명상안에는 사마타적인 요소도 있고 비빠사나적인 요소도 있으니 비빠사나 명상이 고오타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표현입니다.

고오타마는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도 이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있었다는 빨리어 경전 기록을 보면 들숨 날숨 깨닫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인도의 라즈니쉬는 고오타마의 아나파나사티 명상이야말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찬탄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마나가 감각하는 (뇌감각 기관)대상에 대한 깨닫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베다나사티(느낌에 대한 깨닫기) 같은 것입니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느낌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며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마나 감각기관이 하는 활동인데 이것들에 대한 집중도 매우 어려운 사티의 대상입니다.(여기에서 어렵다는 것은 신체 활동에 대한 집중과 사티보다 마나가 감각하는 것을 사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나 감각기관이 감각하는 것을 집중하고 사티하는 것은 루빠사티 즉 신체 활동의 깨닫기가 매우 익숙해진 다음에 해야하는 단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화두는 마나가 감각하는 집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깨닫기가 없는 화두는 몽매요 그냥 몰입입니다. 그리고 깨닫기의 대상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사티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마사티 즉 바르게 깨닫기를 하라는 것이죠. 때문에 올바른 집중과 올바른 깨닫기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고귀한 8겹의 길이 모두 겹으로 서로 관계하고 있으니 한 기능이 무너지면 다른 기능도 무너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두 참구법과 관련해 정, 혜 결사에 대한 조사님들의 수행법을 보면 여기에도 말은 달리 했지만 의미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요, 정 가운데 화두가 역력하면 해라하여 정과 혜를 쌍으로 닦으면 해가 서산에 지기 전에 참학의 도리를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다시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봅시다.

'집중하는 대상에 사티가 없으면 몰입이요, 무기이지만 집중하는 대상에 사티가 역력하면 지혜를 완성해 나가는 통찰이요, 깨어있음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집중과 사티가 함께 잘 되면 해가 서산에 지기전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실상을 확실히 알것 입니다. 그래서 사티와 집중의 개발이 우선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전부이자 그 밖에 더 아무것도 없는 깨달음의 길, 아리야 아탄 기이카 막까-고귀한 8겹의 길을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간화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여래선을 하든 사마타, 비빠산, 탄트라 무수한 명상법 그 어느 것을 택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요, 선택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불자란 오직 고오타마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만약 누구라도 스스로 불자라고 한다면 우선 고오타마 가르침 핵심인 고귀한 8겹의 길을 정확히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에 의해 깨어나는 길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 이 길이 깨어나는데 유일하다라고 하신 고오타마의 말씀을 본인은 실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확인해야 할 일 남아 있습니다만, 불자들의 스승에 대한 예우요 또 자세가 아닌가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고귀한 여덟겹의 길, 거기에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여덟겹의 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 실천하면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고 스승 고오타마는 단언하셨습니다. 2500여년 전의 사자후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